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
	배포일자	2023년 5월 7일(일) 총 2매	
담당 부서 수산기술 지원센터	담 당 자	• 수산기술보급팀장 이의진 ☎458-7461 • 담당자 황윤재 ☎458-7467	
사진(이미지)	☐ 없음 ▣ 있음	참고자료	▣ 없음 ☐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이작·소이작어촌계 어장에 새꼬막 종패 약 11톤 방류

- 3일 소이작 5.7톤, 4일 이작 5.6톤 방류 통해 새꼬막 시범 양식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관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「새꼬막 시범 양식」 사업을 위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작·소이작어촌계 어장에 새꼬막 종패 약 11톤을 방류했다고 밝혔다.

이번에 방류한 새꼬막은 전남 여수시 여자리 지선에서 채취된 종패로 전염병 검사 결과, 퍼킨수스감염증과 흰반점병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크기는 각 장 1.5~2.5cm 내외다.

새꼬막은 꼬막조개과에 속하는 이매패류로, 참꼬막과 피조개의 중간 크기이며, 방사늑(패각의 주름)의 수가 29~34줄로 혈액 내 헤모글로빈을 함유하고 있어 살이 붉은색을 띠고, 최대크기 각 장 8cm 전후까지 자란다.

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새꼬막 시범 양식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어촌계 면허어장을 대상으로 새꼬막 양식 어장 적지 조사를 수행했으며, 3일 소이작어촌계 면허어장의 약 5.7톤의 새꼬막 방류를 시작으로 4일 이작어촌계 면허어장에 추가로 약 5.6톤을 방류했다.

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새꼬막 종패 방류가 완료되면, 매월 방류어장 대상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.

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“새꼬막의 단가는 바지락보다 높고, 겨울철 어한기에 채취작업이 이루어져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 라며, “앞으로도 신품종 자원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

<table>
<tr><td>
</td><td> </td></tr>
<tr><td>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전경</td><td>새꼬막 종패 방류 현장</td></tr>
<tr><td> </td><td> </td></tr>
<tr><td>새꼬막 종패 방류 현장</td><td>새꼬막 종패 방류 현장</td></tr>
</table>